

'행진' 위한 불꽃혼

현장보도

故 김기설 열사의 죽음

故 강경대 열사 이후 계속적인 가두시위와 규탄대회중 학생들의 잇따른 분신사태가 속출하고 민중운동세력 또한 조직적 역량 결집을 강화하던중 또 다시 분신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8일 서강대 본관 옥상에 서 민중들의 투쟁을 호소하며 뛰어들어 한 젊은이가 있었다.

곧이어 전민련에서는 '故 김기설(전 민련 사회부장) 동지 분신 항거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故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는 강경대 열사의 폭력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항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현 정권에 게 책일이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최악스러운 노태우 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중권력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열사의 유언은 반민중적 지배체제의 현실을 폭로한 거친 몸부림이었다.

김기설 열사는 88년 성남 민청련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성남 노동자의 집'에서 상담간사, 성남 제2공단 조광평혁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작년 11월부터 전민련 사회국 사회부장으로서 활동했다. 민중운동의 탄압을 늦추지 않는 현정권은 열사의 죽음자체도 또한 매도하고 있다. 현 정권은

故 김기설 열사의 분신에 대해 "자살을 부추기는 조직적 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타살의 가능성 및 불순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철저적 자살인검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제 '故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왜곡수사에 맞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

는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일은 '살인정권 규탄 및 故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 추모대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렸으며 오는 14일에는 민주국민장으로 마석모란공원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마저 쇠파이프에 유린되는 현실이기에 죽음으로써 의지를 불사른 김기설 열사는 이제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끔 한다.

(송보영기자)

왜곡수사 정권규탄으로 확대 "민중권력쟁취 위해 하나돼야"

최근 분신·투신자

□박덕용씨 사건일지

지난 9일 오후8시경 전주 경남택시노조산하 마일택시노조 조합원 박덕용(31)씨가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에 분개, 농약 복용후 분신을 기도했으며 10일 현재 중태이다.

박덕용씨는 병원이송중 "노동부와 정부는 사업주편이다"라고 외쳤으며, 마일택시노조 총파업 14일째인 9일 시청 항의방문시 정권의 폭력탄압과 노동위의 중재회의 결과 노조측의 요구안 결렬이 분신계기로 작용했다.

□강남씨 사건일지

지난 10일 오후5시 성수대교 북단20m지점에서 최윤호씨비인 후과 간호사 강남(31·女)씨가 투신, 척추골절상과 하반신마비로 중태중이다.

강남씨가 소지했던 수첩에는 "강경대 추모식에 참석 못해 미안하다. 민중을 위해 죽은 친구여! 영원히 이땅에 태어 나라"고 적혀 있었다.

□윤용하씨 사건일지

지난 10일 오후6시30분 전남대 제1학생회관내 대강당에서 윤용하(23)씨가 "노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 10일 현재 전

故 김기설 열사 유서전문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도 더욱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

노태우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민자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금의 정권은 타도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죽음과 아픔을 안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최악스러운 행위만을 일삼아온 노태우 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중권력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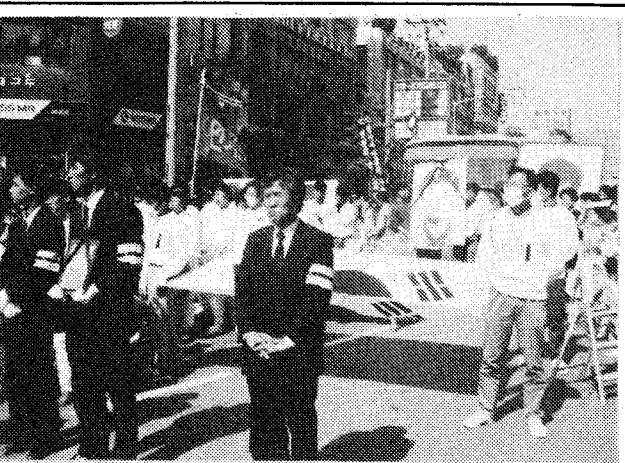
路祭 통한 열사의 한풀이

故 천세용 열사 장례식 풍경

지난 9일 경원대학대운동장에서 열린 故 천세용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12시부터 시작된 장례 일정은 추모사와 예배를 끝내고 오후1시40분경 경원대학 정문을 나와 시청까지 약1.3km를 행진하였다. 경원대에서 행사중이던 4천여명이 성남시 시청앞까지 가면서 많은 시민이 가세하여 추모행렬은 1만여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운구행렬도중 도로양편의 시민들은 故 천세용 열사에게

조의를 표했다. '노태우 타도', '백골단 해체', '민자당 타도', '천세용을 살려내라'는 수십개의 깃발이 선두에서 펄럭였으며 용성중원소속 3백여명이 사수대를 조직하여 운구행렬을 호위하였다.

성남시 시청 앞 "노태우...노태우...정권, 타도...투...투쟁"이라는 목소리가 시민·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직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손으로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故 천세용 열사의 목소리였다. 병원에서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에서 "왜 분신을 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해 "오직 투쟁을 위하여"라고 답변하는 그의 목소



◇지난 9일 성남 시청앞에서 열린 故 천세용 열사 노제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용이가 마지막으

이날 민가협 회원들은 故 강경대 열사의 대형영정과 천세용 열사의 크고 작은 영정을 준비하였다. 애도의 뜻을 담은 추모가를 불렀을 때 시민·학생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경원대 풍물패 학생들의 한풀이춤에서 정권의 폭압과 열사의 죽음, 애도의 뜻을 불 수 있었다. 노제가 끝난후 운구차는 정지인 남양주군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하였다.

(이지현기자)

성남시민 가세 운구행렬 장사진 시청앞 1만 운집 열사 넋 위로

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집회에 모인 시민·학생들은 모두가 '투쟁'이라고 대답하였다. "젊은이들이 지금 정권타도를 외치며 몸을 불사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권은 열사의 분신이 배후세력에 의한 계획된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지 아실것입니다"라고 민주국민당 장래위원장 문익환 목사는 역설했다. 또 도종환씨는 "세용이의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가슴에 꿰는듯한 분노와 두주먹을 쥐고 "세용아!, 세용아!"를 부르며 열사의 영정에 머리숙였다. 이날 시민·학생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 것은 20여명의 민주주의실천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경대열사와 분신열사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집회에 모인 시민·학생들은 울분을 금치 못했다.

대립속에 전도된 타살주범

지는 이를 뒷받침해온 일등공신 중의 하나가 '배후조종세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와 연결될 때에는 대 국민 무마책으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있었다.

"타치니 '악'하고 쓰러졌다"와 '배후조종세력'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두 진영간의 논리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에 결국 헤게모니장악을 위한 싸움의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현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은폐·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문사를 당한 박창수(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씨의 시신을 탈취하여 가족의 입회도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강제부검을 실시하여 '시신확보'→'강제부검'→'왜곡발표'→'조기장결'이라는 짜여진 구도에 의해 사건을 축소·무마

고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듯이 '분신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음'이 판명되었고, 유서나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볼 때 '배후조종세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실사 '배후조종세력'이 있었다는 치더라도 지금의 우리 사회가 소수 가진자를 위한 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중을 위해 분신하는 투쟁방식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흔히 지금의 잇따른 사건들은 구조적 폭력과 모순에 기인한다고 할 때, 그리고 열사들의 구호와 유서에 비취를 때 정부측 말대로 '배후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의 '배후조종세력'공작은 더 이상 지금의 투쟁열기를 무마시키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투쟁의 수위는 故 강경대 열사 죽음에서 시작했던 도덕적 수준에서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을 앞두고 있으며, 계급적인 투쟁에서 지속적인 대중적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 정부가 '배후조종세력' 운운하는 것은 결국 '제 땅을 제가 재촉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배후조종설'의 실체

최근 들어 정세가 급격하게 고강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항상 그랬듯이 정세고강화에는 사회의 제 세력들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현 정세 고강의 동력이 계속되는 분신과 투신사태에 의한 것이라 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주도권싸움이 집권층이라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현재 야당의 경우 이번의 사건들을 광역의회나 앞으로의 선거일정 속에서

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측의 대응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사정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금의 고강된 정세와의 매개물을 사전에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 더우기 며칠전 서강대에서 분신한 故 김기설 열사의 죽음은 놓고 '분신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가정을 확대시켜 '배후세력의 조정이다', '비밀 결사단', '생명을 희생 도구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전남대에서 분신한 윤용하(23)씨를 놓

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측의 대응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사정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금의 고강된 정세와의 매개물을 사전에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 더우기 며칠전 서강대에서 분신한 故 김기설 열사의 죽음은 놓고 '분신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가정을 확대시켜 '배후세력의 조정이다', '비밀 결사단', '생명을 희생 도구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전남대에서 분신한 윤용하(23)씨를 놓



현 장 취 재

"전 민중이 연대하여 총 진군하자"

종로, 서울역, 을지로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함성들. 지난 9일 서울 10만의 민중들은 '타도 노태우'를 외치며 밝까지 현정권의 반민중성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방현기 기자)

대우가족



그대 듣는가, 고향의 언덕에 울려 퍼지는 경희사자의 포효를!

"등용문을 지나서 교정을 걷다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 고향(高風)의 5월은 푸르다는 것을. 반세기 가까이 살아온 전라야의 열이 숨겨지고, 자주와 민주가 뜨거워지는 곳이 바로 경희라는 것을..."

고향의 언덕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경희사자들이여 - 숭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뜨거워 가슴으로 오늘을 지키고 있는 그대의 자랑 고향의 언덕에서 그대, 젊은 시절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살아 숨쉬는 열정을 진지하게 쏟으십시오.

그러하여 모두의 가슴 속에 전라가 숨겨져, 고향의 언덕, 고향의 숲길 사이 사이로 경희인의 가슴이 솟구친다면 - 선행(先學)의 빛나는 발자취를 좇아 사회의 참된 일꾼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지니!

자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경희의 심장, 고향의 언덕에서 전라를 추구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경희인과 함께, 창조, 도전, 희생의 정신으로 그 이상을 실현해가는 -

대우가 있습니다.

경희대 개교 42주년을 축하합니다.